

달라진 대입, 지방 학생 불안하다

**등급제 폐지로 내신 비중 떨어져
농어촌 특별전형 축소·폐지될라
영어 평가 시험에 사교육비 부담**

올해 대입에서 수능등급제가 폐지되면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내신의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광주·전남지역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교와 학생들이 불상을 찾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또 2013학년도부터 수능에서 영어과목이 빠지는 대신 영어능력평가시험이 실시되면서 사교육을 부수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학부모들도 좌불안석이다.

수능등급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 상위권 고교 학생에는 유리하지만 그동안 내신의 이점은 최대한 활용했던 중·소도시 학생들은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타격이 예상된다.

올 대입에서 22년 만에 서둘대 학생을 배출한 보성고 이성환 진학실장은 “대학은 기본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 잘 가르치려 하기보다 이미 상당수준에 올라 있는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불리하게 될 것”며 “내년 입시에서는 올해와 같은 성적을 거두리라 장단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완전한 대학자율화가 이뤄지면 농어촌 특별전형이 축소 또는 폐지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순천고 강대창 진학실장은 “지방 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불리하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논술의 비중이 낮아져 부담을 줄여야 했던 점”이라며 “내신 위주의 입시전략은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중2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2013학년도부터 영어능력평가시험에 수능을 대체하게 될 것

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일반 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영어 사교육비를 부족지하고 있다.

중2 학생을 둔 학부모 정도(43)씨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객관적 평가를 담보하는 ‘연간 학부모 평가’를 통해 학부모는 ‘영어에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1년에도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학부모는 “읽기·쓰기·말하기·듣기·영역 등의 시험을 보게 된다는 데 현재 학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스템이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는 ‘영어에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1년에도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학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공교육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두고 시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 교육은 수능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대세인데 굳이 새로운 시험을 더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현재의 공교육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실생활에 유용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며 “자꾸 제도를 바꾸려 할 게 아니라 교사 확보나 질 담보, 학습법 연구 등 프로그램의 변화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상기자 camus@kwangju.co.kr



‘연 만들기 신나요’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추억의 민속놀이 행사’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부모들과 함께 방파연, 가오리 연 등 각종 연을 직접 만들고 있다. 24~25일에는 제기, 팽이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워커기자 jrwi@kwangju.co.kr

주요 대입 내신반영률 10~20% 축소

2009학년도 입시 때

대입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10~20%대로 줄이고 수능 성적은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을 현재와 같이 등급으로만 활용할 방침이어서 수시전형에서 논술고사의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대학들은

2009학년도 내신실질반영률을 20% 수준으로 다소 축소할 방침이다.

숙명여대는 2009학년도 입시전형 계획에서 “정시모집 전형에서 내신실질반영률을 15~20%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정시에

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19.94%로 정했다가 교육부의 내신 비중 확대 방침에 따라 29.95%로 상향조정 했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지난 해 내신실질반영비율은 21.28%였지만, 2009학년도에는 다소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

/연합뉴스

이므로 올해도 20%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수능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수시에서는 등급을 적용하고 정시에서는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새로 제공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으며, 중앙대 장훈 입학처장은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상우씨 협박 혐의

김태춘씨 항소심 무죄

영화배우 권상우(32)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범시방과 전 두목 김태춘(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권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타르 피해 진정되니… 집단소송 유치 쟁탈전

수도권 법무법인 전결음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어민 등의 집단소송을 맡기 위한 물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전남 타르피해 어민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에 따르면 태안 등 일자 피해 지역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형 법무법인과 해양 피해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대거 내려와 실태 파악과 주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들이 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피해 주민들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익적 차원에서 전남 서해안 피해어민들을 위해 구성된 광주변호사회의 지원단도 어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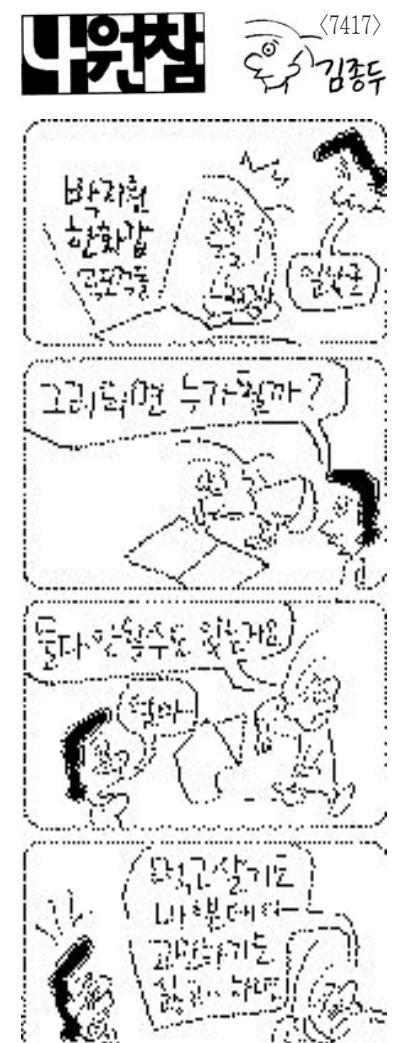
지원단은 최근 수협과 대책위

주민들을 만나 법과 법리 적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수협 측이 이를 거절해 성사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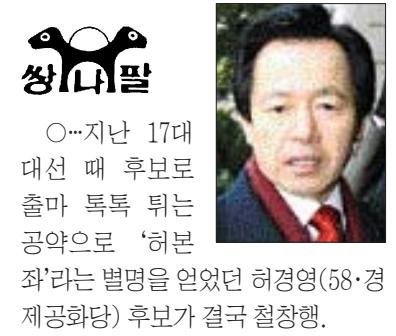
지원단 관계자는 “최근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내려와 실태 파악 등을 하고 나서면서 수협과 어민들이 사건 수임을 위한 시각으로 법조인을 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지원단은 이같은 오해의 소지 때문에 무료 법률상담과 법을 구조에만 주력하고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게 나누다 보면 중복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피해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최소의 사례금으로 효율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조인과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공익법인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특단의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허본좌’ 허경영씨 결국 철창행



○… 지난 17대 대선 때 후보로 출마 톡톡 뛰는 공약으로 ‘허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허경영(58·경제공화당) 후보가 결국 철창행.

○… 서울남부지검 특수부(이영만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무가지에 자신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언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로 허씨를 구속했다.

○…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판사는 “피의자가 유력 정치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머리 아플 땐, 캐롤을 부르세요~



효과가 빠르다, 위장 부담이 적다 –
캐롤에프의 이부프로펜아르기닌 효과!

체내에 신속히 흡수되어 효과가 빠릅니다.
흡수 초진체민 아르기닌에 비해 이부프로펜의 위장을 흡수합니다.

위장보호 작용으로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아르기닌의 뒤꿈치 헬퍼를 즐기시기하고 위장의 흡수를 줄여 위장을 키우세요.



가격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번호: 080-022-1010 | www.ildong.com

광주 100세를 살피는 ILDONG 일동제약